



"탄탄하게, 핵심으로"

_1702호



1702_[문법] + [추강에 밤이 드니] + [넋가에 해오라바] + [가노라 삼각산아] + [승무] + [꽃] + [국순전]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1702호

문법>

01_ <보기>를 잘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갑_먹고
을_뵘고
병_(인형을hug hug) 안다
정_먹을 게 없어서 흥만 먹고 살았다는 우리 백성님들
무_백성님들 신경 안 쓰고 흥만 가득했던 탐관오리놈들

- ① 갑, 을, 병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② 을에서는 연속되는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③ 정, 무의 '흥만'과 '흥만'은 표기와 발음의 형태가 각각 모두 다르다. O/X
- ④ 정의 '흥만'에서는 두 차례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만, '백성'에서는 특별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O/X
- ⑤ 무의 '가득했던'에서는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나 거센소리가 되는 음운 변동과 앞말 끝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 첫 소리로 옮겨 가는 음운 현상이 모두 일어난다. O/X

02_ <보기>를 잘 보고, 괄호 속 초성을 채워 보세요.

보기

어미는 (ㅇ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사와 형용사인 (ㅇㅇ)에서 볼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여말어미, (ㅅㅇㅇ)어미로, 쓰임에 따라 앞과 뒤를 연결하는 (ㅇㄱ)어미, 문장을 서술하는 종결어미, 해당 단어의 성질을 바꾸어 주는 전성어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03_ <보기 1>은 조사를 성질에 따라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2>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각 격조사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밝혀 보세요.

보기 1

조사는 쓰임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세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격조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주-, 문장에서 주체 행위의 대상이 목적-, 대상을 부를 때 쓰여 대상을 독립 성분의 역할을 하게 하는 호-, 앞말에 붙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형-, 앞말에 붙어 앞말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 특정 서술어 앞에 쓰여 앞말이 문장의 보어임을 알리는 보-,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기 2

사람들의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는 내려올 때 보았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그 꽃송이들을.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로브스터가 아니다. 당연히 포기할 생각은 없다. 날개 앞 돌아라 한 번 더 날아 보자꾸나.

⇒

04_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이때, 다의어끼리는 의미상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상의 공통 부분 없이 우연히 표기와 소리만 같은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다의어'와는 다르게 구분한다.

- ① 공부를 하도 해서 허리가 굽었다.
- ② 고기를 하도 굽다가 허리가 굽었다.
- ③ 늦잠으로 엄마가 나를 하도 굽길래 집에서 도망나왔다.
- ④ 호박고구마를 잘 구워서 할머니께 드렸다.
- ⑤ 나는 나의 학구열로 문제지를 새까맣게 구울 것이다.



05_ 다음 각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임요소(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 ①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언제 가세요?
- ② 연세가 있으신 외삼촌을 모시고 가야하니깐 조금 걸리겠지?
- ③ 형이랑 같이 있기 싫어요. 어머니께서 혼내 주세요.
- ④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셔야 해서 좀 바쁘단다.
- ⑤ 응 아빠 동생놈들은 내가 보고 있을게. 아빠는 엄마랑 외삼촌 모시고 오세요.

06_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한 번씩만 씁니다.

보기

교체交替 / 교환交換 / 제기提起 / 제출提出 / 색출索出
 도출導出 / 유입流入 / 도입導入 / 발견發見 / 발명發明
 봉착逢着 / 수습收拾

- ① 정부에 문제를 []하다.
- ② 불량 지도자를 우량 지도자로 []하다.
- ③ 마트에서 산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하다.
- ④ 똑똑우체국에 서류를 []하다.
- ⑤ 문제를 풀다가 문제 간의 공통점을 []하다.
- ⑥ 주4일 근무제를 어서 []해야 한다.
- ⑦ 선생님의 눈을 피해 잘때도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안경을 []하다.
- ⑧ 한 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었음에도 정답이 []되지 않는다.
- ⑨ 백 명 중 단 한 명.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을 []하라.
- ⑩ 무분별한 불량식품의 [] 때문에 내 배가 자꾸 아프다.
- ⑪ 꼭 선택지 두 개 중 하나가 남아서 선택의 기로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문두와 제시문과 보기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렴.
- ⑫ 천 개들이 비비탄 통이 뚜껑이 열린 채로 엮어졌다. 아무래도 []이 불가능할 것 같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 02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03 무심(無心)흔 돌빛만 싯고 뵈 빈 비 저어 오노라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17E특

[나]

- 01 냇?에 히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 02 무심(無心)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혀려는다
- 03 아마도 흔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신흥, '냇가에 해오라바~'@17E특

*히오라바: 해오라기야.

*여어: 엇보아.

[다]

- 01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 | 아
- 02 고국산천(故國山川)을 써느 고자 흐라마는
- 03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흔니 올동말동 흐여라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17E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뵈니]

[가]

- ① '추강'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고기'가 '아니 무'는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무심'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돌빛'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뵈 빈 비'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⑥ '히오라바'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저 고기'는 (□약한 / □강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고기를 여'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니저신들'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⑩ '삼각산', '한강수'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시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올동말동'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는 모두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계절감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나, 다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가는 나, 다와 달리 3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⑥ 나, 다는 가와 달리 구체적 청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X
- ⑦ 가~다는 모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O/X
- ⑧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가,나와 달리 다는 구체적 지명을 바탕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⑩ 가~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02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03
- 04 파르라니 깎은 머리
- 05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06
- 07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08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09
- 10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 11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 12
- 13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 14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 15
- 16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17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 18
- 19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20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21
- 22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 23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 24
- 25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 26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17E수특

*귀뚜리_귀뚜라미

[나]

- 0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02 그는 다만
- 03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04
- 05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06 그는 나에게로 와서
- 07 꽃이 되었다.
- 08
- 09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10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 11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12
- 13 그에게로 가서 나도
- 14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15
- 16 우리들은 모두
- 17 무엇이 되고 싶다.
- 18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19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읽니]

[가]

- ① '고깔'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나빌레라'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통해 대상의 (□패션 스타일 / □신분) 알 수 있다.
- ④ '두 볼에 흐르는 빛'은 (□기쁨의 / □슬픔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외씨보선'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별빛'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합장'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밤'은 (□경쾌한 / □조용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⑨ '이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몸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빛깔과 향기'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무엇'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눈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 X
- ②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③ 가는 나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⑤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감정을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가는 나와 달리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⑦ 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⑧ 가는 나와 달리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교차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 / X
- ⑨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⑩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⑪ 나와 달리 가는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⑫ 가와 달리 나는 시상이 진행되며 대상이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다. O/X
- ⑬ 가와 달리 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⑭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O/X
- ⑮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X

04_제시문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승무僧舞'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민속 춤으로, 번뇌煩惱의 해소와 종교적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는 예술 갈래이다. 이같은 이유로 승무의 분위기는 여타의 춤들과는 달리 엄숙하며, 춤추는 이는 춤이 시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춤추는 이 내면의 성찰과 기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춤이 시연되는 장소 또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보다는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인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화려하지 않은 춤 복장과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고요한 가운데 드러나는 움직임, 동중정動中靜·움직임 가운데 스며든 고요함'을 승무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승무가 시연되는 시, 공간적 배경과 잘 어우러져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① '나빌레라' ♪ 를 통해 승무가 지닌 경쾌함을 엿볼 수 있다. O/X
- ② '두 볼에 흐르는 빛'은 춤추는 이의 번뇌와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③ '파르라니 깎은 머리', '번뇌', '합장인 양 하고'에서 승무의 종교적 성격을 볼 수 있다. O/X
- ④ '고와서 서러워'에는 외부에서의 시선과 내면으로의 시선이 모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⑤ 시상이 전개되며 외부 관객의 시점에서 화자 내부의 시점으로 화자의 시선이 전환되고 있다. O/X
- ⑥ 작품이 진행되며 활기찬 분위기에서 경건한 분위기로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O/X
- ⑦ '하이얀 고깔', '소매', '외씨보선' 등의 복장은 자칫 어두워보일 수 있는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밝은 이미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X
- ⑧ 5, 8연은 정적 측면이 극대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춤이 시연되는 무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⑩ 춤이 시연되는 시간적 배경은 춤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국성*의 자는 중지(中之)*니, 주천 고을 사람이다.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
- 02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살았는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흠어져 살기도 했다. 국성의 증조부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 않다가 조부 모(牟)가 주천으로 이사하여 놀러살면서 드디어 주천 고을 사람이 되었다. 아버 차(醜)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을 하였다. 차는 평원 독우(督郵)*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국 씨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 03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 04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 마치 만경(萬頃)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는 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 05 성은 자라서 중산(中山)의 유명*, 심양(瀋陽)의 도잠*과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 06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튼다.”
- 07 이들은 성과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 08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 종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 09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 10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었다.
- 11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 12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량중(主客郎中)*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채주(國子祭酒)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 13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천식·진작의 예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국성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빗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 14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 15
- 16 [중략 부분 줄거리] 성의 세 아들은 아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군다. 이에 모영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세 아들의 탄핵을 요구하고, 세 아들은 음독을 하여 죽는다. 성은 죄값으로 서인으로 폐해진다.
- 17
- 18 성이 벼슬을 그만두자 제(齊)* 고을과 격(鬲)*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 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책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

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하면서도 모든 고생을 군사와 같이했다. 수성(愁城)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하고 나서 거기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

- 19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 20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이라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이셔서 빈천한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 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얇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옵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 21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송계,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 22 그의 아우는 현이다. 현은 즉 탁주다. 그는 벼슬이 2,000석(石)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 두, 양, 남이다. 익은 색주, 두는 중앙주, 양은 막걸리, 남은 과주이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에 주, 만, 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적(籍)을 평씨(萍氏)에게 소속시켰다.

23

24 사신(史臣)은 말한다.

25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작자 미상, '국순전'@17E수특

*국성: 맑은 술을 의인화한 표현.

*중지: 곧드레만드레. 술에 취해 뺨은 모양.

*서막: 중국 위나라의 지독한 애주가.

*독우: 벼슬 이름.

*사농경: 농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

*유영: 중국 서진의 사상가.

*도잠: 중국 동진의 시인.

*태사: 천문과 역사를 맡은 직책.

*주객량중: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벼슬.

*제: 배꼽을 뜻함.



*격: 가슴을 뜻함.

01_정리없이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의인화된 인물의 삶이 일대기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② 중심 인물이 등장하게된 유래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O/X
- ③ 인물 간의 반목을 통해 중심 인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나 있다. O/X
- ④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서술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작품의 표면에 내세워 중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성은 어릴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심성을 인정받았다. O/X
- ⑦ 성은 어려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벼슬길에 올랐고, 나이 들어서도 의지에 따라 벼슬길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O/X
- ⑧ 성은 아들과 함께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굴다 다른 이에게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O/X
- ⑨ 성의 아들들은 임금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O/X
- ⑩ 임금은 국성과의 친교에만 관심을 두다 정치를 놓쳐 마을에도 독이 들끓게 되었다. O/X
- ⑪ 성은 나라 안 뿐 아니라 나라 밖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O/X
- ⑫ 성은 단 한 번의 전투로 도적들을 토벌할 수 있었다. O/X
- ⑬ 성은 정치적 싸움에 염증을 느껴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O/X
- ⑭ 성은 자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은퇴 직후 죽게 되었다. O/X
- ⑮ 성이 죽자 임금은 상을 내려 성의 공을 기념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01 구보는

02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너거리에 아무런 사무(事務)도 갖지 않는다.

03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05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 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盲點)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總督府病院時代)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眼科再來)'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06 R, 4 L, 3

07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화했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強度)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08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09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10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11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12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13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14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영하니 그곳에서 있었다.

15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16

17 전차 안에서

18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9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20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郊外)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21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22 표, 짝음쇼 —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宗廟)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23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24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25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26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떠한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27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拙)하

28 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29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O/X
- ② 작품 창작 당시의 생활상이 상세히 묘사되어 드러나 있다. O/X
- ③ 두 개의 중심 사건이 번갈아가며 전개되고 있다. O/X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외부 갈등으로 확대되어 드러나 있다. O/X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O/X
- ⑥ 의도적으로 행을 분리하여 독자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서술 방식이 드러나 있다. O/X
- ⑦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O/X
- ⑧ 주인공은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목적지로 이동중인 상태이다. O/X
- ⑨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에 흡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O/X
- ⑩ 구보는 자신의 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으로 친구를 찾아가려 한다 O/X



+@/ ㅈㅊㄴㅅㅈ

단[어]의[의]미

교차交替_사람이나 사물을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
신함

교환交換_서로 바꿈

제기提起_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제출提出_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

색출索出_살살이 뒤져서 찾아냄

도출導出_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유입流入_01.액체나 기체, 열 따위가 어떤 곳으로 흘러들

02.돈, 물품 따위의 재화가 들어옴

03.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

도입導入_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임

발견發見_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발명發明_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봉착逢着_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딪침

수습收拾_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

미래에서온[고전문문]

**만흥漫興@17E수특
운선도**

해적 병설

- 01 산과물과 바위아래 초가집을 지었더니
- 02 내뿜은 농팽이들 꺾꺾깔깔 날비웃네
- 03 어리석은 시골노인 나한테는 이게최고
- 04
- 05 보리밥에 풋나물을 딱적당히 먹은후에
- 06 시냇물긴 바위끝에 걸터앉아 실컷노네
- 07 속세따위 일들이야 부러울리 있겠는가
- 08
- 09 술잔두고 혼자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 10 좋은사람 온다해도 이것보다 좋겠느냐
- 11 말도없고 안웃어도 산이그저 나는좋네
- 12
- 13 높은벼슬 많은권력 나보다더 즐거우랴
- 14 속세피해 숨어살던 소부허유 똑똑하네
- 15 숲과샘물 즐거움을 비교할데 전혀없네
- 16
- 17 귀차니즘 내성격을 저하늘도 아셨는지
- 18 복잡복잡 속세일을 한가지도 안말겨서
- 19 싸움없는 강과산을 지키라고 하셨다네
- 20
- 21 이자연이 좋다한들 내능력에 얻었겠니
- 22 즐거움을 내려주신 임금님의 덕분이네
- 23 값고값고 또값아도 다값을길 전혀없네



현대어 해설

- 01 아름다운 강산의 큰 바위 아래 아담한 초가집을 짓고자하니
- 02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 03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로 내 분수인가 하노
라. [01수]
- 04
- 05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 06 바위 끝 물가에 앉아 실컷 노니노라.
- 07 그 밖의 자잘한 일이야 부러워 할 리 있으랴 [02수]
- 08
- 09 술잔을 채워두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 10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한들 반가운 것이 이보다 더하랴.
- 11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지만 마냥 좋아하노라. [03수]
- 12
- 13 누가 말하길 전원생활이 정승노릇 하는 것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천
자인들 이만하랴
- 14 이제 헤아려보니 소부와 허유가 참으로 영리하더라.
- 15 아마도 자연 속 한가로운 흥취는 견줄 것이 없으랴. [04수]
- 16
- 17 내 본성이 게으름을 하늘이 아셨던지
- 18 인간세상 수많은 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맡기지 않고
- 19 다만 서로 차지하려 다투지 않는 강산을 지켜라 하시었구나. [05수]
- 20
- 21 강산이 좋다 하나 보잘 것 없는 나의 분수로 누워있겠는가?
- 22 임금의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알겠노라.
- 23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값을 길이 없구나. [06수]

원작품

- 01 산수간 바회 아래 뉘집 을 짓노라 하니
- 02 그 모른 놈들흔 웃는다 한다마는
- 03 어리고 향암 의 뜻의논 내 분 인가 호노라. [01수]
- 04
- 05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먹은 후에
- 06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 07 그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러 줄이 있으랴. [02수]
- 08
- 09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뉘흘 바라보니
- 10 그리든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 11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03수]
- 12
- 13 누고셔 삼공三公 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 이 이만하랴
- 14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 낙뉘더라
- 15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랴 [04수]
- 16
- 17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 18 인간만사人間萬事를 훈일도 아니 맛더
- 19 다만당 다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하시도다. [05수]
- 20
- 21 강산江山이 도타 훈들 내 분분으로 누엄느냐
- 22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23 아무리 값고자 하야도 히을 일이 업세랴. [06수]

시어뭉니

- 뉘집_풀로 엮어 만든 집. 초가집
- 향암_어리석은 사람
- 분_능력
- 슬카지_실컷
- 삼공_높은 벼슬
- 도곤_ '~보다'를 의미하는 비교 표현
- 만승_큰 권세
- 소부허유_자연 속에서 은거하던 중국의 명사名士들
- 낙뉘더라_약았더라, 여기서는 '훌륭하더라'의 의미



답_☀️)☆1702호

[[]]

문법>

- 01_ O-된소리되기(교체) / X / X-발음의 형태는 같음 / X-백성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남 / X-가득했던에서는 거센소리 되기(축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남
- 02_ 순서대로 어간, 용언, 선어말, 연결
- 03_ 차례로 관형격 - 주격 - 부사격 - 목적격 - 서술격 - 보격 - 호격
- 04_ 1-1과 나머지는 동음이의 관계, 2-5는 다의 관계
- 05_ ①_ 깨서, 세(시어),-요
②_ 연세, 있으신, 모시고
③_ -요, -세, -요
④_ 깨서, 모시고, 오셔야
⑤_ 모시고, 오세(시어), -요
- 06_ 제기 / 교체 / 교환 / 제출 / 발견 도입 / 발명 / 도출 / 색출 / 유입 봉착 / 수습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가을밤 #낙시 #무심*
[나]_#잘잠지내들
[다]_#조국 #그리움
- 02_ [가]_관 / 관 / 관 / 관 / 관
[나]_안 / 약 / 안 / 관
[다]_관 / 안 / 안
- 03_ X / O / X / O / X
O / X / X / O / X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_#춤 #불교 #번뇌 #관찰
[나]_#의미 #꽃 #이름
- 02_ [가]_관 / 관 / 신 / 슬 / 관
관 / 관 / 조
[나]_관 / 안 / 관 / 관 / 관
관
- 03_ X / O / O / O / X
X / O / O / O / O
O / O / O / X / X
- 04_ X / O / O / O / X
X / X / X / O / O

문학> 고전소설편>

- 01_ #술 #일생
- 02_ O / O / X / X / O
O / X / X / X / X
X / O / X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방향 #생각 #관찰 #행복
- 02_ X / O / X / X / O
O / X / X / X / X

-안내-

1701호 문법> '01'의 정답 중 일부가 누락되어 이점 안내합니다. '01'의 본디 정답은

X-소리 / O / X / O / O
X / X / O / X / X

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